

이리공고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육성

전북자치도교육청, 컨소시엄 구축... 20개 기관과 손잡고 교육부 신규 지정 도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에 나섰다.

지난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리공업고등학교를 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로 육성하기 위해 20개 기관과 손잡고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기관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및 한국EV기술인협회, 성일하이텍, 에너이버터리솔루션 등 4개 기업, 그리고 전북대학교 등 3개 대학,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연구소 등 모두 20개 기관과 실무 협의회를 가졌다.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유망 분야에 특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리공업고등학교를 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로 육성하기 위해 20개 기관과 손잡고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 도전한다.

된 전문 산업 인력을 양성한다.

앞서 교육부가 2024년 10월까지 반도체, 디지털, 첨단부품소재(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3개교 내외를 마이스터고로 우선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리공업고는 (가칭)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배터리용 합과 96명을 모집하는 등 총 18학급 288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리공업고의 2024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한시적으로 18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이차전지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기숙사 신축 사업비 190억원 확보 △실습실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비 확보 △이차전지분야 교원연수 등 마이스터고 지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이기로 했다.

김주영 이리공업고 교장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지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리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이차전지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가칭)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리공업고등학교가 이차전지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 영면... 향년 89세 평생 지역인재 발굴·장학사업에 헌신



고(故) 장진영 배우의 부친이자 평생을 장학사업에 매진했던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이 지난 16일 향년 89세로 영면에 들었다.

지난 17일 우석대학교에 따르면 고인은 2010년 3월 사재 11억 원을 출연해 계암장학회를 설립한 이후 매년 전북지역 대학과 중·고교, 지자체 등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장학사업에 헌신해 왔다.

계암장학회는 고 장진영 배우의 아호를 딴 것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장진영 배우의

유지에 따라 설립됐다.

특히 고인은 올해 1월 "살아생전 간절히 원했던 딸의 뜻이 전달됐으면 한다"며, 우석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사재 5억 원을 출연했다.

또한 딸의 모교인 전주중앙여고, 고향인 입실군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중·고교 등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계암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혜택을 받는 지역의 중·고교생은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

고인은 생전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싶다"며, 계암장학회를 통해 소외된 환경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돕는 장학사업이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유지를 밝힌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지난 16일 전주 라투체 블랙라벨 2층 세미나실에서 '2024 전북통일교육센터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박노준 총장과 전북통일교육 위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석대, 전북통일교육센터 출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 16일 전주 라투체 블랙라벨 2층 세미나실에서 '2024 전북통일교육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노준 총장을 비롯해 전북통일교육 위원 및 통일업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박노준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2024년 사업계획 보고, 통일교육 강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박노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통일교육센터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일교육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평화통일의 밑거름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무선인터넷 통합유지관리

전북자치도교육청,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앞두고 체계 마련 안정적 교수학습 환경 제공·학교 무선망 운영 부담 절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무선인터넷 통합유지관리를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장비의 장애·고장 복구, 성능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학교의 소액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해 계약 기피 또는 비전문업체 계약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교원의 업무가 가중돼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체계화 된 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무선망 운영·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콜센터 운영으로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현장 컨설팅 시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각급 학교의 무선인터넷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무선인터넷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학교의 무선인터넷 운영·관리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대, 말레이시아 공대와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 구축

아마드 파우지 이스마일 총장 전북대 찾아 공동연구 등 협력 JBNU-UTV 공동 연구소 설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과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아마드 파우지 이스마일(Ahmad Fauzi Ismail) 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17일 전북대를 찾아 박영기 교학부총장을 접견, 학생 및 교원 교류와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말레이시아 공과대학은 공학부 등 7개 학부 60개 학과로 구성된 종합 대학으로, 올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188위, 아시아 38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 특히 석유공학과와 자원공학과, 전기전자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등이 세계 100위권 안에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아마드 파우지 이스마일 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17일 전북대를 찾아 박영기 교학부총장을 접견, 학생 및 교원 교류와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포함될 정도로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교환학생, 복수전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JBNU-UTM 공동 연구소 설립을 통해 공학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협의했다.

박영기 부총장은 "글로벌 파트너십

은 지식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며,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라며 "공동연구 활동, 학생 및 교직원 교류, 활발한 아이디어 및 문화 교류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과의 알찬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직원 서포터즈'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올해 기관 중점 사업으로 직원들이 직접 홍보활동에 나서는 '직원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원 서포터즈는 이현규 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해 회관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MZ세대로 구성된 직원 서포터즈 1TF팀 10명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각에서 홍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면 홍보 3가지 △학교 방문 인형탈 퍼포먼스 홍보 △아파트 및 관용버스를 활용한 적극 홍보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한 수시 홍보와, 비대면 홍보 4가지 △직원이 직접 홍보하는 기관 소개 프로그램 홍보 및 수강생 소감 영상△ 우리 회관 서포터즈를 활용한 심층 취재 △학생 및 학부모 커뮤니티 등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일 전일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에서 인형탈(에어슈트)을 착용하고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마케팅을 진행했다. 홍보 안 내문(리플릿)과 기념품(청렴사탕)을 나눠주며 회관의 어린이 및 청소년 공간, 프로그램에 대해 알렸다. 이어 13일에는 전주학생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멘토링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관 및 학교의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링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계약업무 추진 시 겪는 어려움을 선배공무원과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선배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계약업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수 있다.

멘토단은 분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과 7급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계약 방법, 공고문 작성, 적격심사 등 계약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유선, 방문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17일 전주 완관문화관에서 멘토단 교육을 갖고, 물품·용역·공사 계약 등 분야별 주요 컨설팅 내용과 활동 방향 등을 안내했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학교 계약업무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계약업무 지원 멘토링제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맞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 참여 5개 대학과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단(LINC 3.0)은 지난 16일 LINC 3.0 사업 참여 5개 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 캠퍼트리프트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계명문화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안산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계주관공대학교 등 LINC 3.0 참여 5개 전문대학 사업단장 및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



상호 협력을 통해 창출된 성과 사례를 공유했다.

각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

적인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동 협력 추진 △도출된 성과에 대한 공유·확산 워크숍 등 공동 개최 △기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또는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체결 후 각 대학의 실무진들은 LINC 3.0 사업을 통한 지자체 협업 성과 창출 사례와 RISE대비 지자체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RISE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RISE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내달 3-14일 원서접수, 7월 5일 구술고사 거쳐 12일 발표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이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학원서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이어 7월 5일 구술고사를 거쳐 7월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입학원서는 식물방역대학원 홈페이지(https://gqq.jbnu.ac.kr/gqq/index.do)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식물방역대학원은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전북대가 '1기반 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경북대는 '검역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전남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적 방제 기술 개발'을 맡아 분야별 커리큘럼을 구축했다. 또한 3개 대학이 공동과정을 운영하며 온라인 및 대면 실험실습 수업을 실시한다. /정은성 기자

특히 재직자 과정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주제로 선정해 교육과 연구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확립했다.

식물방역대학원장인 추병길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식물방역대학원은 농업분야 병해충 관리에 관련된 인력 육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농업 생산의 현장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후기 입학생들이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물방역대학원은 전북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설립한 특수대학원이다. /정은성 기자